

미국의 총체전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군의 총체전력 육성방안



52사단 213-4대대
화곡8동대장 장학선



37사단 112-3대대
동량훈련대 임동욱



미군 예비군 합동훈련: 육군과 해군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군비 경쟁 심화 등으로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과 국방 분야의 충분한 재정 지원 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장 환경 급변으로 국방 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미국의 총체전력을 알아보고 한국군의 총체전력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체전력(One Army)이란 무엇인가?

총체전력이란 국가안보전략 수행을 위해 전투력을 제공하는 조직과 부대, 개인으로 정의된다. 총체전력의 유래는 베트남 전쟁 여파로 국방예산 감축, 모병제로의 전환에 따라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군사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0년에 국방장관 레어드(Melvin R. Laird)가 도입했다. 유사시 상비군을 후속 지원하는 전력으로 평시 상비군을 적정 수준까지 감축하는 대신에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총체전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상비군-예비군 통합 프로그램은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원 전 훈련소요를 줄이며, ‘하나의 육군(One Army)’ 정책을 촉진시켜 예비군의 군사적 효과성이 향상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군의 감소와 예비군 필요성 확대, 부족한 국방예산 등 당시 미군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유사하다.

美 예비군의 역종 분류와 현황

미군 병력은 정규군과 주방위군(Nation Guard), 연방예비군(Reserve)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이 예비군으로 분류된다. 예비군은 7가지 종류의 예비군으로(7Reserve Components) 세분화된다. 즉, 육군과 공군 주방위군,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예비군 그리고 해안경비대(Coast Guard)다. 주방위군은 주정부에, 각 군 예비군 및 해안경비대는 연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미군 예비군의 역종은 다음 <표1>에서 보듯이 선발예비역(SELRRES), 개인긴급예비역(IRR), 대기예비역, 퇴역예비역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편성과 역할이 각기 상이하다. 美 국방부는 미군 예비군(선발예비역 기준)이 정규군과 동일한 전투수행능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비군의 실질적 전투능력은 선발예비력으로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¹⁾

<표 1> 미국 예비군의 역종 분류

구분			세부 내용
긴급 예비역	선발 예비역	부대편성 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부대 단위 편성 예비역 • 최소 48개 훈련과제 시행, 최소 훈련 39일

1. 신다원·정철우, "미국 예비군의 발전 사례를 통한 한국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650호(16-54), 2016. 12. 19. pp.2-3.

〈표 1〉 미국 예비군의 역종 분류

구분		세부 내용	
긴급 예비역	선발 예비역	상근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비군 및 예비군 부대에 상근하는(Full Time) 예비역 부대조직·행정·신병 모집·교관 등 임무수행
		개별동원 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비군 부대에 개별 편성된 예비역 0~48개 훈련과제 시행, 최소 훈련 14일
	개인긴급 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복무기간 내에서 현역 또는 선발예비역 아닌 자 선발예비역 희망 및 보충요원, 최소훈련 1일 훈련 참여 시 진급 및 퇴역점수 획득(연 30일 이내) 	
대기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복무기간 내에서 현역 또는 긴급예비역 임무수행이 곤란한 자, 긴급예비역 또는 현역 만료자 중 희망자 훈련 참여 시 진급 및 퇴역 점수 획득(장군 진급 불가) 특정 기술 및 주요기관 동원보류자 	
퇴역예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한 60세 미만인 자 진급 기회 미부여 예비군 미편성, 완전동원 시 동원 가능 	

예비군 병력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선발예비군을 기준으로 美 예비군은 총 병력의 38%를 차지한다. 예비군 구성 비율을 보면 육군이 전체 예비군의 66.0%로 가장 많고, 공군이 21.4%로 그다음으로 많다.

〈표 2〉 미국 군별 선발예비역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병력	상비군 병력	예비군 병력	예비군 비율	예비군 구성비
육군	1,015,384	475,400	539,984	53.2%	66.0%
해군	382,504	324,524	57,980	15.2%	7.1%
해병대	222,018	183,501	38,517	17.3%	4.7%
공군	493,134	317,883	172,251	35.5%	21.4%
해안경비대	46,930	40,357	6,573	14.0%	0.8%
합계	2,155,953	1,337,648	818,305	38.0%	100%

출처 :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2016. 9.

美 예비군과 한국 예비군의 비교

① 美 예비군과의 임무를 비교해보면 한국 예비군의 임무에는 전시 동원 대비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美 예비군의 임무는 전술기지 지원, 의무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우리 군은 무장소요 진압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하게 군사적인 임무만 갖는 美 예비군과 차이가 있다.

〈표 3〉미·한 예비군의 임무 비교

구분	美 예비군 ^{a)}	한국 예비군 ^{b)}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기지 지원 • 의무, 보급 운영 및 병참 • 공병 및 수송 • 준비태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동원 대비 • 무장소요 진압, 무장공비 소멸 • 중요시설, 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 민방위 업무 지원

출처 : a) 국방부, 미국의 예비전력,(1992), p18 / b) 육군, 예비군법(2020. 5), 제2조(임무)

② 다음의 〈표 4〉를 살펴보면 美 예비군과 한국 예비군은 신분·역종·편성·훈련·규모·예산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4〉美 예비군과 한국 예비군 비교

구분	美 예비군				한국 예비군	
신분	군인				민간인	
역종	간급예비군		대기 예비역	퇴역 예비역	동원지정	동원 미지정
	선발 예비역	개인 간급 예비역				
편성	지정부대	미편성		지정부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	
훈련	14~39일	최소 1일		1~4일		
규모	약 81만	약 25만	약 20만	약 273만		
예산	국방비의 90%				국방비의 2%	

美 예비군은 훈련 소집 등으로 상비군 또는 예비군부대에 복무 중일 때는 군인 신분인 반면, 한국 예비군은 ‘동원령’ 선포에 의해 「병역법」 제 46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이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 신분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역종 면에서 한국의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전투수행능력 차원에서 美 예비군의 개인간급 예비역(IRR)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역 후 훈련의 양 관점에서는 미국의 개인간급 예비역과 한국의 동원 지정된 예비군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발 예비역은 부대 단위로 작전에 직접 투입되지만 한국은 감편부대를 ‘동원지정’된 예비군으로 보충하여 완편 후 작전에 투입

된다.

美 선발 예비역의 훈련 일수는 14~39일, 우리는 1년에 1~4일이다. 美 선발예비역의 경우 상비군 수준의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한국 예비군의 경우 지급장비나 물자 등을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美 선발 예비군의 경우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한국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²⁾ 예산 측면에서 미국의 예비군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예비군 예산은 하위를 밀돌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군의 총체전력 육성방안

① 주특기훈련의 체계화를 통한 전력 강화

美 예비군의 경우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부대가 균형 잡힌 조화를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육상·해상·공중의 어떤 임무라도 육군을 지원할 200여 가지 주특기 보유자를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³⁾ 이에 비해 한국 예비군은 1~4년차 때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데, 편성에 의해 자신의 주특기와 유사 주특기로 분류되어 훈련을 받으나 주특기를 숙달하기에는 다소 많은 제한요소가 따른다. 또한 5~6년차 예비군은 기본 훈련 시 대부분의 인원이 주특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목(전투과목 위주 편성)으로 훈련받고 있어, 주특기훈련에 대한 체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예비군도 미군과 같이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으로 구분해 훈련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주특기에 의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병과별·신분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한국 비상근 예비군 복무 제도 확대를 통한 조직 비중의 변화

美 선발 예비군 제도를 토대로 한국 비상근 예비군 복무 제도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발예비군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표 2>의 현황을 보면, 美 선발 예비군은 총 병력의 38%를 차지한다. 美 육군 선발 예비군의 비중은 53.2% 수준으로 상비군보다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2019년 예비군훈련 대상자(‘20~22년 코로나19로 지표 미산출)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동원예비군이 예비군 총 인원의 29%를 차지하며, 동원 미지정 인원은 7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에 선발예비군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올해 약 3,500명 수준의 비상근 예비군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 예비군의 0.12%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선발 예비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응, 예산 편성은 차치하더라도 예비군의 군사적 효과성이 향상됨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예비군을 운용 시 어떠한 훈련과제와 훈련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달성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美 선발 예비군 운영과 같이 총 예비군 인원 대비 선발예비군의 비율을 최소 3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발예비군 비율의 상승은 총체전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미국, 프랑스, 독일은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현역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미군 예비군 병장 4년차의 1일 훈련수당은 20.5만 원, 대위 6년차는 42.7만 원이다. <http://www.nationalguard.co/pay/calculator>

3. 이종진,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건강대 학위논문, 2009. 12. pp. 21~22



한국군 예비군 과학화훈련

③ 보상과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

미국은 예비군 소집 및 동원에 대한 보상을 현역 급여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동원, 부분동원, 개별 소집, 의무훈련을 위해 일정기간 소집 중에도 본래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수당 등은 직장에서 지급된다. 군에서는 예비군의 계급, 호봉, 특기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계급의 현역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④ 예비군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전력 향상

〈표1〉에서는 美 선발예비역은 14~39일의 훈련을 실시하는 반면에 한국 예비군은 일 년에 1~4일 정도 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전투기술을 반복 숙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의 예비군 훈련대 과학화훈련은 모든 과목이 동영상

시청-위게임-예행연습-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분대가 한 과목에 집중될 경우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한 과목에서 총 50분의 교육시간을 진행하면, 실제 실습시간은 약 10~20분 정도다. 과학화된 장비를 활용해 개인과제를 숙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인과제를 합격할 때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에 반해 단점으로는 별도의 넓은 공간이 신설되어야 하고 과학화된 장비를 갖춰야하므로 예산 소요가 크다는 점이다.

〈표 5〉 예비군훈련 필수과제 모델(예)

구분	공통 / 분대 과제	개인 과제		
예비군 훈련	개인화기 사격	개인화기 분해 결합 / 응급처치	완수신호	부상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시가지 전투(과학화)			
	야지전술훈련(과학화)	편제화기 분해 결합 / 응급처치	전투체력	MOPP 4단계
	영상모의사격(과학화)			
미래 과학화 훈련	VR/AR/AE훈련	VR훈련 (가상현실)	AR훈련 (증강현실)	AE훈련 (증강 아바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바라본 한국군의 총체전력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는 ① 주특기훈련 체계 개선 ② 선발제도 확대 ③ 예비군 역할 확대 ④ 부상 및 복지제도 개선 ⑤ 훈련과제의 미래화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거듭된다면 한국군의 총체전력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